

〈부록〉

抗日鬪爭에 관한 문헌 목록

金 學 俊

(서 울 대 학 교)

〈目 次〉

- | | |
|---------------------------------|--------------------------------|
| I. 머리말 | IV. 日帝 植民地 아래서의 獨立運動 |
| II. 獨立運動 관계 文獻目錄 | V. 日帝治下의 한국민중과 친일파 |
| III. 日帝 植民地化 이전의 韓國民族主義에 관한 研究들 | VI. 日帝의 朝鮮침략에 관한 후버 연구소의 자료 목록 |

I. 머리말

필자는 1983년에 출판한 「韓國政治論」(한길사)에서 本稿의 주제를 다뤘었다. 이어 1987년 8월에 출판된 「한국독립운동사연구」(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에 기고한 本稿와 같은 제목의 글을 통해 「韓國政治論」이 다루지 못했던 문헌들을 소개했다. 이 글은 拙著와 拙稿에서 다루지 못했던 이상의 문헌들을 소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II. 獨立運動 관계 文獻目錄

우선 국사편찬위원회가 1984년에 출판한 「한국독립운동사 論著 목록」을 지적할 수 있다. 이 목록에는 1895년 이후부터 1983년까지 국내외에서 간행된 ‘주권 수호와 독립 운동에 관한 선학들의 연구업적’

이 일목요연하게 소개되어 있다. “여기에는 한국 독립운동사 연구의 편의를 위해 독립운동과 연관성이 있는 각국의 제국주의 침략정책, 특히 일제 식민 통치에 관한 관계자료도 아울러 수록하였다.” 그리하여 이 목록에는 단행본 1,317종과 논문 4,074건이 수록되어 있다.

이 문헌들이 이 目錄集에서는 다음의 10개 항목으로 나뉘어 게재되었다: (1) 일반·통사, (2) 의병 항쟁, (3) 애국계몽운동, (4) 3·1운동, (5) 임시정부·의열투쟁, (6) 학생 운동, (7) 사회·사상·경제 운동, (8) 교육·문화 운동, (9) 인물·전기, (10) 자료. 여기서 帝國主義의 침략정책과 日帝 식민통치에 관한 자료는 일반·통사편 및 자료편에 실려 있다.

Ⅲ. 日帝 植民地化 이전의 韓國 民族主義에 관한 研究들

우선 국사학자 金昌洙교수의 「韓國 近代의 民族意識 연구」(同和出版社, 1987)를 검토한다. 이 책은 서론과 결론을 제외하고, 4편 9장으로 되어 있다.

제 1 편은 〈보수적 재야 지식인의 민족의식〉이다. 여기에는 제 1 장 〈黃玹의 개혁사상과 민족의식〉, 제 2 장 〈黃玹의 東學에 대한 인식과 민족의식〉, 제 3 장 〈黃玹의 東學 농민혁명에 대한 인식과 민족의식〉 등 세 편의 논문이 실려 있다. 이 논문들을 통해 저자는 “黃玹(1885~1910년)의 보수적 개혁사상을 살펴봄으로써 당시 체제내의 개혁을 시도했던 재야 지식인들의 민족의식에 접근시켜 보려고 하였다. 즉, 그의 개혁사상이 현상타파를 위한 근대적 개혁의 문제에까지 이르지 못한 까닭이 무엇이며, 외세에 대한 저항의식의 이념적 바탕이 무엇인가 등에 걸쳐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제 2 편은 〈온건중도 지식인의 민족의식〉이다. 여기에는 제 1 장 〈金

炳始의 경제론과 민족의식)과 제 2 장 <金炳始의 經世論과 민족의식>이 실려 있다. 이 두 논문에서는 “金炳始(1832~1898년)의 중도적 개혁 사상 내지 온건 개량주의를 검토해 보았다. 즉, 그의 중도적 개혁 의지는 보수와 개화의 갈등 속에서 점진적 개혁과 민족의식을 이념으로 하여 격동기의 諸 국면에 어떻게 대처하고 대응하였는가의 문제를 살펴보고 하였다.”

제 3 편은 <개화 지식인의 민족의식>이다. 여기에는 제 1 장 <개화기의 국학진흥운동과 민족의식>과 제 2 장 <張道斌의 사학과 민족의식>이 실려 있다. “제 3 편에서는 보수파에 대립되는 개화 지식인들의 의세에 대응하는 자세로서 국학 진흥의 필요성이 왜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게 되었는가의 경위를 검토해 보았다.”¹⁾

제 4 편은 <민중적 지식인의 민족의식>이다. 여기에는 제 1 장 <全璜準과 東學농민혁명>과 제 2 장 <東學농민혁명 진압책과 外兵차입논의>가 실려 있다. “제 4 편에서는 민중적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는 全璜準(1885~1895년)과 농민혁명의 문제를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즉 여기에는 본격적인 농민혁명 연구에 앞서 먼저 제기되는 문제, 이를테면 東學과 농민혁명의 관계, 東學과 민란과의 관계 등에 걸쳐 살펴본다.”²⁾

1) 개화파 지식인들의 대표적인 정치 운동이었던 갑신정변에 관한 최근의 연구로 韓國政治外交史學會 논총 제 1 집, 「갑신정변연구」(평민사, 1985)를 지적할 수 있다. 이 책은 크게 보아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 첫번째 부분이 갑신정변 1백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1984)에 발표되었던 논문들이다. “개화사상의 단계적 고찰: 초기 개화파의 사상적 특질을 중심으로”(柳根鎬), “윌렌도르프가 본 갑신정변”(Walter Leifer), “북한 사학에 나타난 갑신정변의 음미”(申福龍), “북한에 있어서의 갑신정변 연구에 대하여”(馬淵貞利), “일본에 있어서의 갑신정변의 연구”(原田環), “갑신정변에 대한 한국학계의 평가”(韓興壽) 등이 그것이다. 두번째 부분은 일례발표회 논문이다. “갑신정변에 대한 재평가 1: 갑신정변은 타율적 사건이었다”(男國柱), “갑신정변의 재평가 2: 갑신정변은 자율적 사건이었다”(朴日根), “갑신정변의 善後處理를 위한 청일간의 외교교섭 시말”(金景昌) 등이 그것이다.

2) 동학혁명에 대한 국내 정치학자의 가장 탁월한 저서는 申福龍교수의 「동

이어 사회학자 愼鏞廈교수의 「韓國 近代民族主義의 형성과 전개」(서울대학교 출판부, 1987)를 검토한다. 저자는 “한국의 近代民族主義를 고찰하는 방법에는 사상가별로 고찰하는 방법, 민족운동별로 고찰하는 방법, 그 밖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전제하고, “여기서는 한국 근대사의 理解와 직결시키는 지름길이 되는 방법의 하나로, 처음에 한국 근대민족주의의 기원을 다루고, 그 후부터는 한국 근대사에서 가장 큰 봉우리들을 형성한 큰 민족운동별로 이를 고찰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저자에 따르면, “그 첫째 봉우리는 초기 개화파와 갑신정변의 민족주의, 둘째 봉우리는 동학과 갑오농민전쟁의 민족주의, 셋째 봉우리는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의 민족주의, 넷째 봉우리는 韓末 의병운동의 민족주의, 다섯째 봉우리는 韓末 애국계몽운동의 민족주의, 여섯째 봉우리는 3·1독립운동의 민족주의이다.” 그리하여 이 책은 바로 이 여섯 봉우리를 개별적으로 다루었다.

저자는 이 여섯 봉우리의 한국 근대민족주의를 조감하는 제 1장 〈한국 근대민족주의의 기원〉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시민적 근대민족주의 흐름으로서의 개화사상은 초기 개화사상→갑신정변→독립협회→애국계몽사상으로 크게 발전하였고, 농민적 근대민족주의 흐름으로

학사상과 갑오농민혁명」(평민사, 1985)이다. 제 1부는 〈緒章〉으로, 동학연구의 쟁점들과 방법론을 다뤘다. 제 2부는 〈역사적 전개〉이다. 〈동학의 시대적 배경〉, 〈동학의 唱道와 전개 과정〉, 〈갑오혁명의 전개과정〉, 〈전봉준의 생애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 〈갑오혁명 전후의 한·미관계〉로 되어 있다. 제 3부는 〈사상적 전개〉이다. 〈동학의 기본사상〉, 〈동학의 정치사상〉, 〈동학의 형성·발전에 미친 서구의 충격〉, 〈동학사상에 나타난 敎·政 관계〉, 〈동학사상과 갑오혁명에 나타난 민족주의〉로 되어 있다. 제 4부는 〈결론〉으로, 갑오농민혁명의 역사적 평가를 시도했다. 부록으로 동학 및 갑오혁명 관계 포고문 40개를 모았다.

이 책을 통해 저자는 갑오혁명을 ‘한국 민족운동사의 기원’으로 보았다 왜냐하면 갑오혁명은 “[……] 완전하다고는 할 수 없을지라도 역대의 어느 민족주의적 운동보다도 민족주의로서의 체반 요소를 커다란 결함없이 갖추고 있었고[……] 그 후대의 민족운동에게 하나의 모델을 제시해 주었고 그 前史와 후대를 잇는 고리[環]의 역할을 했다” 때문이다(p. 364). 저자는 “갑오혁명과 거기에 포함된 동학사상이 전승되어 민족운동으로 승화된 가장 고귀한 예를 우리는 3·1운동에서 찾을 수가 있다”고 보았다(p. 365).

서의 동학사상은 초기 동학사상→갑오농민전쟁→천도교로 발전하여 결국 종교에 귀결되었다. 반면에 전근대적 민족주의 흐름으로서의 위정척사사상은 병인양요→신미양요→을미의병운동을 거쳐 1905년 국권을 빼앗긴 이후에는 각계각층의 항일의병무장투쟁에 주도적으로 연합하였다.”(p. 30). 저자는 이 “두 개의 흐름의 한국 근대민족주의와 한 개의 흐름의 전근대민족주의는 서로 갈등을 일으키면서 합류하지 못하고 있다가 1919년 3·1운동에 이르러 완전히 합류되어 한국 근대민족주의의 발전에 한 단원을 이루게 되었다”고 보았다(p. 31).

愼교수는 「申采浩의 사회사상 연구」(한길사, 1984)를 통해서도 한국 근대민족주의의 성격과 내용을 분석했다. 제 1 장은 <신채호의 생애와 업적>이다. 저자는 “日帝 강점기의 한국 社會思想史에서 가장 독특하고 주체성 있는 사상가를 든다면 신채호가 바로 그러한 사상가였다”라고 평가한다. 제 2 장은 <신채호의 애국계몽사상>, 제 3 장은 <신채호의 「讀史新論」의 비교 분석 : 1908년경 시민적 근대민족주의사학의 성립>, 제 4 장은 <신채호의 혁명적 민족주의사상>, 제 5 장은 <신채호의 무정부주의 독립사상>, 제 6 장은 <신채호의 민족국가관과 시민적 민족주의사상>이다.

安重根에 대한 일본인의 연구로 邦譯된 것은 中野泰雄(저)·金永光(역)의 「安重根」(경운출판사, 1984)이 있다. 安義士의 거사가 韓日合邦을 앞당기는 결과를 가져 왔다는 일본 보수사학계의 주장을 이 책은 부인한다.

IV. 日帝 植民地 아래서의 獨立運動

愼鏞廈교수의 「韓國 民族獨立運動史 연구」(을유문화사, 1985)는 다섯 편의 논문으로 되어 있다. 제 1 장은 <新民會의 창건과 그 국권회

복운동>이다. 저자는 “新民會는 日帝에 의해 나라가 식민지로 강점되기 바로 직전의 가장 절박한 시기인 1907~10년 간의 국권회복운동을 담당하여 주도하고 지도한 구국운동단체이었다”라고 평가하고, “新民會의 국권회복운동은 그 후의 모든 독립운동에 튼튼한 초석을 쌓고 큰 원동력을 공급한 것이었으며, 우리나라 근대의 역사와 사회와 문화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것이었다”고 결론지었다(p. 140).

제 2 장은 <安重根의 사상과 의병운동>이다. 저자는 “일반적으로 安重根이 伊藤 포살 전에 애국계몽운동에 종사했고 義兵將으로 활약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다. 또한 安重根의 東洋平和論과 그의 伊藤 포살은 모순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전제하고, 이러한 인식을 교정하기 위해 安重根의 사상과 의병운동을 밝히기로 한 것이다.

제 3 장은 <3·1 독립운동 봉기의 경위>이다. 저자는 “3·1 독립운동을 고찰할 때 첫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이 운동의 ① 초기 조직 단계 (또는 초기조직화의 단계)와 ② 민중운동 단계 (또는 민중운동화의 단계)를 구분하여 고찰한 다음, 다시 이를 통합시켜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한다. 이 논문은 “3·1운동의 기획 단계에 해당하는 초기 조직 단계의 기본 과정을 검토하여 보는 데 한정되어 있다.”

제 4 장은 <3·1 독립운동의 社會史>이다. “이 논문에서는 3·1운동의 해석에 있어서 이미 형성되어 있는 고정관념 중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지는 것을 골라 사회사적 관점에서 재검토했다.” 여기서 저자는 새로운 해석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3·1운동은 “월슨의 민족자결주의의 영향을 받고 일어난 운동이 아니라 開港 전후부터의 한국의 近代民族主義가 발전하여 일으킨 독립운동이며, 월슨의 민족자결주의가 제 1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의 식민지 처리를 둘러싼 열강의 표리부동한 식민지 재분할 정책임을 알면서도 이를 기회로 포착하여 활용한 독립운동이었다”라는 점이다.

제 5 장은 <독립군의 靑山里 독립전쟁의 연구>이다. 이 논문은 1920년 10월 21일부터 10월 26일 새벽까지의 6일간에 걸친 청산리 독립전쟁을 “日帝 강점기 國韓의 무장 독립 운동사에서 가장 큰 전투였고, 韓國 민족이 쟁취한 가장 큰 승리의 독립전쟁이었다”라고 전제하고, 이 전쟁에 관해 잘못 알려졌거나 덜 알려진 부분들을 상세히 분석했다.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가 1970년부터 1978년까지 펴낸 10권의 책이 있다. 제1권이 「의병항쟁사」(1970), 제2권이 「3·1 운동사(상)」(1971), 제3권이 「3·1 운동사(하)」(1971), 제4권이 「임시정부사」(1972), 제5권이 「독립군전투사(상)」(1973), 제6권이 「독립군전투사(하)」(1975), 제7권이 「의열투쟁사」(1976), 제8권이 「문화투쟁사」(1976), 제9권이 「학생독립운동사」(1977), 제10권이 「대중투쟁사」이다.

이 전집과 짝지어 나온 것이 전14권 별집 3권의 사료집이다. 제1권이 「의병항쟁사 자료집」(1970), 제2권이 「의병항쟁사 자료집」(1971), 제3권이 「의병항쟁사 자료집」(1971), 제4권이 「3·1운동사 자료집」(1972), 제5권이 「3·1운동 재판기록」(1972), 제6권이 「3·1운동사 자료집」(1973), 제7권이 「임시정부사 자료집」(1973), 제8권이 「임시정부사 자료집」(1974), 제9권이 「임시정부사 자료집」(1975), 제10권이 「독립군전투사 자료집」(1976), 제11권이 「의열투쟁사 자료집」(1976), 제12권이 「문화투쟁사 자료집」(1977), 제13권이 「학생독립운동 자료집」(1977), 제14권이 「대중투쟁사 자료집」(1978), 별집 제1권이 「의병항쟁 재판기록」(1974), 별집 제2권이 「임시정부 외교문서집」(1976), 별집 제3권이 「재일본 한국인 민족운동사 자료집」(1978)이다.

앞의 전집 10권은 1980년 民族文化協會에 의해 다음과 같이 바뀌어 출판되었다. 제1집이 「의병들의 항쟁」(조동걸), 제2집이 「3·1운동」(김진봉), 제3집이 「정치·외교투쟁」(추현수), 제4집이 「독립군의 전투」(신재홍), 제5집이 「의사와 열사들」(김용국), 제6집이 「종교·교

육투쟁」(이만열), 제 7집이 「언론·학예투쟁」(최일수), 제 8집이 「학생운동」(정세현), 제 9집이 「대중운동」(조동걸·박용옥), 제 10집이 「선열들의 유묵」(편집부)이다.

3·1운동에 대한 자료로 素石學人이 쓴 「기미년 학생운동의 전모」(근역출판사, 1946)가 있다. 저자의 「朝鮮獨立運動秘史」의 제 2집으로 발간되었으며 3·1운동 가운데 학생운동의 전모를 밝혔다. 3·1여성동지회가 편집한 「한국여성독립운동사: 3·1운동 60주년기념」(1980)은 방대한 기록으로 3·1운동 가운데 여성운동의 전모를 밝혔다.

한대희가 편역한 「植民地時代社會運動」(한울림, 1986)은 두 개의 서로 다른 叢 책들로부터 각각 몇 부분들을 번역해 묶은 것이다, 첫째 李馨松이 지은 「朝鮮社會思想運動沿革略史」의 제 1장을 번역했다. 이 책은 원저의 서문에 따르면 日本 고등경찰의 의뢰와 격려에 의해 쓰여져 1933년 등사본으로 발간되었다. 이 책은 1966년 영인본으로 발간되었는데, 이때 李馨松과 坪江汕二라는 이름을 모두 쓰고 있어 同一인으로 보여진다. 더우기 이 책의 내용이 坪江汕二의 이름으로 1966년 巖南堂書店에서 출판된 「朝鮮民族獨立運動秘史」의 내용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틀림 없다고 생각된다. 이 책의 내용에 대해 편역자는 이렇게 설명한다: “「약사」는 공산주의 운동으로부터 시작하여 종교운동에 이르기까지 당시 朝鮮의 諸般 사회운동을 다루고 있으나 종교 및 종교단체에 관한 부분은 담고 있는 내용이 식민지 시대 사회운동 연구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 [……] 「약사」는 그 쓰여진 의도와 저자의 시각이 갖는 한계를 시종일관 드러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민지 지배세력이 1930년대 초기에 파악하여 정리한 朝鮮의 民族解放鬪爭史라는 점에서 그 시대 연구의 중요한 자료 중 하나라고 아니할 수 없다.”

둘째, 金正明이 엮은 「朝鮮獨立運動」(原書房, 1967)에 실려 있는 文件들 가운데 1930년대 초반 이전의 文件들을 가려 뽑아 번역했다. 24개의 자료들을 번역했는데, 여기에는 韓人社會黨 約法과 朝鮮共產黨

黨則 및 朝鮮共產黨事件 判決 등등이 포함되어 있다.

배성찬이 편역한 <식민지시대 社會運動論 연구>(돌베개, 1987)는 1928년 3월에서 1930년 9월 사이에 민족독립운동에 깊이 개입했던 직업적인 운동가들에 의해 씌어진 글들을 모은 것이다. 이 책은 3부로 되어 있다. 제 1부는 <식민지 시대 社會運動論 서설>로서, <조선 사회운동 약사 코스>, <조선의 경제와 조선 공산주의자의 당면 임무>, <조선 혁명의 특질과 노동 계급전위의 당면 임무>, <조선에 있어서 프롤레타리아 운동의 방향 전환기의 이론적 실천적 과오와 그 비판> 등이 실려 있다.

제 2부는 <방향 전환기의 社會運動論>이다. <《조선운동》 발간선언의 비판>, <무엇으로부터 시작할 것인가 : 공장의 속으로>, <改良主義와 항쟁하라 : 元山爭議에 대하여 전 조선 노동자 대중에게>, <朝鮮共產黨 불세비키화의 임무>, <조선에 있어서 반제국주의 협동전선의 諸문제>, <민족개량주의의 반동적 도량을 분쇄하라>, <평양 제네스트의 의의와 [공산]당의 활동 임무>, <조선에 있어서 [혁명]적 양양과 [공산]당의 임무> 등이 실려 있다.

제 3부는 부록편이다. <동경에 있어서 조선 공산주의자의 운동은 어떻게 발전하였는가>, <N군에게>, <元山 총파업의 경험>, <조선방직주식회사 2천 2백명의 대파업>, <조선 합흥 탄광으로부터> 등이 실려 있다. 끝 부분에, 이 글들의 필자들로서 지도적 위치에 있었던 安光泉과 韓偉健 및 高景欽의 약력이 실려 있다.

韓國社會史研究會의 「한국의 近代國家 형성과 민족문제」(문화과학지성사, 1986)는, 이 연구회 논문집 제 1 집으로서, 다섯 편의 논문을 모았다. 첫번째 논문은 愼鏞廈의 “19세기 한국의 近代國家 형성 문제와 立憲共和國 수립 운동”이다. “일부의 국내의 연구자들 사이에서 韓國 민족은 19세기에 근대 국민 국가 형성 운동이 없었으므로 日本 제국주의의 식민지도 될 운명에 처해 있었다고 설명하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른 것이며, 19세기에 한국 민족이 얼마나 완강하게 근대 國民國

家 형성 운동을 전개했는가를 알지 못하고 나온 주장인 것이다”라는 명제를 제시했다.

두번째는 장상수의 “日帝下 1920년대의 민족 문제 논쟁”이다. 이 글의 주된 관심은 식민지 시대, 그 중에서도 1920년대에 활동했던 社會主義者들이 민족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는지를 알아 보는 데에 있다.

세번째는 정학섭의 “日帝下 해의 민족 운동의 좌우 합작과 三均主義”이다. 이 글은 기본적으로 1930년대 중반 이후 중국에서의 좌우합작운동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記述的으로 살펴보고, 좌우합작을 도모하는 중심적인 정당들이 어떠한 사상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던가를 밝혀 보고자 했다.

네번째는 安俊燮의 “대한민국 임시정부하의 후기 좌우 합작”이다. “독립 운동 단체간의 통일 문제는, 적어도 3·1 운동 이후에 있어서는 좌우합작이 그 중심 테마였다. 독립 운동 기구 중에서도 좌우 합작 문제로 가장 논란이 많았던 것의 하나는 임시 정부였다. 실로 임시 정부에 대한 다양한 평가도 이 합작 문제와 관련된다고 하겠다”라고 전제하고, 이 글은 “바로 이러한 임시 정부를 둘러싼 좌우 합작 운동에 대해” 살폈다.

다섯번째는 서이종의 “한국의 국가 재정 위기에 관한 사회학적 고찰”이다. 이 글은 1970년대와 1980년대 초반을 통해 재정 위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재화 편역의 「한국근대민족해방운동사」(백산서당, 1986) 제 1 권은 3부로 되어 있다. 제 1 부는 <조선 근대혁명운동의 태동>이다. <1910년대 사회경제와 초기 반일운동>, <3·1 민중운동의 전개>, <두 개의 고려공산당—상해파와 이르크츠크파 공산당> 등이 실려 있다. 제 2 부는 <조선공산당의 창립과 민족해방운동>으로, 조선공산당의 성립 및 해산 과정과 신간회의 성립 및 해체 과정을 살폈다. 제 3 부는 <민족해방운동의 새로운 고양>으로, 1920년대 말부터 1930년대 초 사이의

사회경제와 勞農운동을 살폈다. 이 책의 상당 부분은 日文과 英文으로 된 이 방면 책들로부터 번역한 것이다.

金俊燁의 「長征」(金俊燁現代史 ①: 나의 光復軍時節)(나남, 1987)은 중국에서 항일운동에 참여했던 저자의 회고록으로, 부제가 말하듯이, 저자의 광복군 시절을 다뤘다. 이 책은 임정과 광복군 연구에 많은 도움을 준다.

한창수가 편집한 「한국공산주의운동사」(지양사, 1984)는 이 방면에 관한 국내의 기존 저서들을 참고해 연대기적으로 엮은 것이다. 제 1부가 <일제하 한국 공산주의 운동>으로, <일제하 국외 공산주의 운동>과 <일제하 국내 공산주의 운동>으로 구성되었다. 제 2부는 <해방 후 한국 공산주의 운동>으로, <미·소의 진주와 좌익 활동>과 <남로당의 공산주의 운동>으로 되어 있다.

3·1 독립 투쟁에 대한 국내 정치학자의 저술로 李鍾律의 「3·1운동과 민족의 함성」(人文堂, 1984)이 있다. 이 책은 전문적인 연구서라고는 하기 어렵고 일반 독자들의 계몽을 위한 책이라고 할 수 있다. 3·1 운동의 전모를 쉽게 설명하면서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있다.

일제하 국내에서 우파 민족 진영이 지닌 항일 입장은 「新東亞」가 1974년 1월호 별책 부록으로 간행한 「일제하 동아일보 압수 사실집」에 잘 나타나 있다. 여기에는 사실 1백 20여편과 논설 60여편이 ‘복원’되어 실려 있다. 이 책은 확실히 일제하 한국 민족주의 사상사의 연구에 도움을 줄 것이다. 한편 변호사 太倫基의 「回想的 黃河: 피어린 독립군의 항쟁 수기」(甲寅출판사, 1975)는 광복군의 일원으로 중국에서 1943년 말부터 1946년 봄까지 싸웠던 저자의 수기이다. 저자는 “여기 등장하는 인물과 일시나 장소는 일기에 따라 옮겼으므로 전부 사실과 틀림이 없다”고 장담한다. 이 책은 모두 7장으로 되어 있는데, 한민족의 항일 투쟁에 관한 이야기는 주로 제 4장에서 찾을 수 있다.

李商在의 小傳으로는 원로 언론인 金乙漢이 편저한 「月南 李商在一代記」(정음사, 1976)가 있다. 문고판으로 나온 이 책에는 이상재의

略傳 밖에, 그의 사회장 때의 조문과 그 뒤의 추도사 같은 것은 물론 그의 일화와 遺著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한말의 명문거족의 출신으로 온 가족이 만주로 망명해 독립 투쟁에 헌신했고 대한민국 초대 부통령이 된 李始榮의 小傳으로 朴昌和가 쓴 「省齋 李始榮小傳」(을유문화사, 1984)이 있다. 이 책은 3부로 되어 있다. 제 1 부가 풍운의 한말사, 제 2 부가 일제 암흑기의 투쟁, 제 3 부가 독립 건국 민주주의 장정이다. 부록에는 신흥무관학교의 발전이 포함되어 있다. 이 책은 식민회—경학사—부민단—신흥무관학교에 대해 많은 자료를 제공한다. 이어 성재 李始榮선생기념사업회가 편집한 「輓·省齋 李始榮先生」(을유문화사, 1984)도 부분적으로 참고가 된다.

安昌浩에 대한 연구로는 徐英勳 외, 「島山과 힘의 철학」(홍사단출판부, 1985)을 비롯해, 安秉煜의 「島山 안창호」(錦文社, 1972)와 「島山思想」(三育出版社, 1972) 및 張利郁의 「島山 안창호」(태극출판사, 1976), 그리고 홍사단운동70년사 편찬위원회의 「홍사단 운동 70년사」(홍사단출판부, 1986)를 꼽을 수 있다. 한편 李光洙의 「島山 안창호」(태극서관, 1947)와 朱耀翰의 「안도산 全書」(샘터사, 1979)도 좋은 자료이다. 이어 李萬根은 「島山餘錄: 도산 안창호 새 자료집」(홍사단출판부, 1986)을 냈으며, 도산사상연구회는 「도산사상연구」 제 1 집(홍사단출판부, 1986)을 냈다. 후자에는 張乙炳의 “도산 안창호의 정치와 사상”, 李明賢의 “개혁적 창조와 사회”, 金丁煥의 “도산교육 사상의 발전적 계승책”, 李淳珩의 “도산 안창호의 이상촌 건설 운동”이 실려 있다.

V. 日帝治下の 한국 민중과 친일파

日帝 治下の 한국 민중에 대한 연구로 우선 姜萬吉교수의 「日帝시대 빈민생활사 연구」(창작사, 1987)를 꼽을 수 있다. “이 책은 처참했던 식민지 시기 민중 생활의 실상을 밝힘으로써 그 시대 성격을 이해

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서 씌어졌다.” 저자는 “식민지 시기의 빈민은 단순한 가난한 자들이 아니라 의식 있는 민중이었다”라고 전제하고, “식민지 수탈정책이 만들어 놓은 광범위한 이들의 의식 있는 빈민의 존재야말로 바로 식민지 시기의 사회 성격이나 시대 성격을 밝히는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책은 序說에 이어 5장으로 되어 있다. 제 1 장은 <농촌 빈민의 생활>, 제 2 장은 <화전민의 생활>, 제 3 장은 <토막민의 생활>, 제 4 장은 <공사장 막일꾼의 생활>, 제 5 장은 <실업자 문제>이다.

저자는 이처럼 개별적으로 살펴 본 빈민의 생활, 즉 당시 식민지 조선의 대다수를 구성하는 민중의 생활이 너무 비참했기 때문에, 좌익이건 우익이건 모두, 정치체제에 관한 정책에 있어서는 차이를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 토지와 중요산업을 국유화하는 사회주의 정책을 채택했다”고 보았다. 바꿔 말해, 비참했던 식민지 민중생활의 현실이 독립운동전선의 정강·정책의 방향을 뒷받침했다는 것이다(p. 5).

한국사회사연구회 논문집 제 2 집 「한국 근대농촌사회와 日本帝國主義」(문학고지성사, 1986)의 출발점은 “한국의 농촌 사회는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을 받은 이후 자연스럽게 발전하지 못하고 일제의 식민지 수탈 정책으로 말미암아 크게 왜곡되어 발전이 저해되었다”는 명제이다. 이 전제 아래, 식민지 지주 제도 형성의 배경으로서 대한제국 시기의 지주 제도 문제(朴明圭), 대한제국 시기 일본인 대지주 형성의 특징의 문제(문소정),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식민지 수탈 정책과 사업의 전개 과정(김석준), 日帝의 방적회사의 농촌 잠사업의 지배와 수탈(정근식), 일제하에서의 토착자본의 문제(정진상), 1930년대 일제가 벌인 소위 ‘농촌진흥운동’의 성격(한도현) 등을 연구한 여섯 편의 논문으로 구성되었다.

민중에 대조되는 親日派에 대한 연구로서, 제 1 공화정 수립이후 南韓 최초의 저서는 林鍾國의 「親日文學論」(명화출판사, 1966)인 것 같다

저자는 “친일 문학이 한국에서는 1940년을 중심으로 움트기 시작하였다”고 보고, “支那事變을 전후하면서 싹튼 전쟁문학, 다시 그후의 총후의식을 강조한 애국문학, 그리고 40년대 전반의 국민문학하며 그후의 결전문학 등 일련의 문학운동, 문학작품이 정도가 덜하고 심한 차이는 있을지언정 거개가 주체성을 상실한 일본 추종 문학이었다”고 단정했다. 이 책은 “그런 문학에 관해서 그 양상과 본질, 이념과 활동 상황 등의 전부를 규명함으로써 목적을 삼는 것이다.”(p.16).

이러한 목적 아래, 이 책은 우선 1940년을 중심한 전후 약 10년간의 식민지 朝鮮의 정치적·사회적 배경을 분석하고 이어 친일 단체들의 성격과 활동을 설명했다. 이어 친일문학에 속하는 작가 및 작품을 개별적으로 논했다.

저자는 1987년 「親日論說選集」(실천문학사)을 편저했다. 72명의 글과 여러 단체들의 선언문 따위가 14부로 나뉘어 실려 있다. 日帝의 朝鮮 식민 지배 연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료집이다.

金炳傑·金奎東(공편)의 「親日文學作品選集」(실천문학사) I권(1986)과 II권(1986)에는 30명의 작가의 작품이 실려 있다. 이 책 역시 앞의 책들과 함께 日帝의 朝鮮 식민 지배 연구에 있어서 반드시 참조되어야 할 것이다.

Ⅵ. 日帝의 朝鮮 침략에 관한 후버연구소의 자료 목록

마지막으로 日帝의 朝鮮 침략에 관한 후버연구소의 자료 목록을 살펴본다. 이 자료는 南昌祐교수가 정리한 것으로 1894년부터 1910년까지를 다뤘다.³⁾ 이 자료 목록에는 청일전쟁이 일어난 1894년부터 한일합

3) Andrew C. Nahm (comp.), *Japanese Penetration of Korea, 1894~1910: A Checklist of Japanese Archives in the Hoover Institution* (Stanford: The Hoover Institution on War, Revolution, and Peace,

방이 강제된 1910년까지의 기간에 서울주재 일본공사관과 일본의 조선통감부에 보관되어 있던 문서들이 들어 있다. 이 문서들을 복사한 다음 그것을 목록으로 만들고 각 문서마다 약간의 해설을 붙여 놓은 것이다. 이 목록의 서문에서 지적되었듯이, 이 문서들은 청일전쟁으로부터 한일합방까지의 시기에 있어서 조선의 역사와 일본의 역사 및 한·일관계,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국제관계사 연구에 많은 도움을 준다.

이 목록에는 모두 533件(folder)의 문서가 소개되어 있다. 크게 보아 서울주재 일본공사관의 문서들(1894~1905)과 조선통감부(1906~1910)의 것이 있고, 1910년 이후의 것도 약간 있다. 일본 외무성이 서울주재 일본공사관과 조선 안의 다른 영사관들에 보낸 훈령, 이 공관들로부터 일본 외무성으로 보낸 답신과 문의, 본국 정부와 조선통감부 사이의 교신, 일본 외교관들이 서울의 외국 외교관들과 나눈 대화, 일본 외교관들과 조선 관리들과의 대화 및 교신, 관련 조약·협정의 초안 및 확정된 문안 등이 모두 망라되어 있다.

이 목록에는 「추가」 부분이 있다. 이 부분에는 후버연구소에 보관되어 있지는 않으나 한국의 국사편찬위원회에 보관되어 있는 문서들의 목록이 들어 있다. 이 목록의 말미에는 이 문서들의 색인이 실려 있어 자료 활용에 큰 도움을 준다.

公三 閔丙台 教授 追慕論文集 發刊委員會

위 원 장 : 金 榮 國

명예위원장 : 金 聖 悅

葛	天	文	郭	滿	變	姜	信	澤	姜	智	遠
姜	賢	旭	姜	晃	釋	桂	昌	鎬	高		建
高	成	光	高	松	久	高	興	吉	具	永	祿
具	平	會	具	範	謨	權	根	述	權	東	錫
吉	昇	欽	金	奭	圭	金	聖	培	金	靈	求
金	容	達	金	益	成	金	正	勳	金	炫	喆
金	鴻	君	金	雲	泰	金	桂	洙	金	弘	宇
金	炳	垞	金		駒	金	己	變	金	德	煥
金	炳	翼	金	相	廈	金	鍾	河	金	聖	佑
金	聲	翊	金	世	宗	金	永	秀	金	榮	玉
金	永	玉	金	永	佑	金	豫	植	金	容	模(8回)
金	容	模(24回)	金	容	述	金	龍	祚	金	在	洪
金	正	琪	金	枝	榮	金	志	柱	金	之	鉉
金	容	九	金	昌	權	金	昌	河	金	學	俊
金	鉉	圭	金	顯	哲	羅	鍾	一	南	時	旭
南	仲	九	盧	東	一	文	秉	岩	文	昌	克
閔	丙	天	閔	俊	基	朴	容	丸	朴	榮	祚
朴	晚	秀	朴	英	敏	朴	榮	海	朴	章	圭
朴	光	周	朴	男	悅	朴	命	根	朴	文	熙
朴	範	珍	朴		實	朴	仁	淳	朴	鍾	圭
朴	鍾	悅	朴	周	殷	朴	漢	相	朴	熙	俊
白	雲	善	白	完	基	方	孝	宣	襄	成	東

澤赫淵祐喆奎熙植熙燮培一章熙燾述徽得植雄春亮植重周暎哲仲俊洙煥益
 圭鎮芝在性炳世謹啓敏善榮宅喜在澤煥乃重然宗燮永永光時甲昭秀
 成宋沈安梁禹柳尹李李李李李李李李李李任張張鄭鄭鄭慎曹朱崔崔崔韓玄黃
 烈復午源兌天旭炳允弘恒吉憲一九洪旭基午煥逸圭和相文來壁奎元桓珪政
 世東澤承然炳國甲文瑞洋慈俊洪秀泰盛泰石慶大逸淇舜洪基敏宰河仁
 成宋辛安梁吳兪尹李李李李李李李李李李林印張鄭鄭鄭曹曹趙車崔崔崔尹黃
 旭奎淳秀安輝懋烈基亮賢正鎔殷均洙雨哲澤錫斗鎬賀根鈺衡植明煥洛泰必
 炳鷗光澤東東孝鍾丙相秀宇鍾炯一采榮致明炳九然好成重汶仁昌錫善
 成孫申安梁吳魏劉殷李李李李李李李李李李印張田鄭鄭鄭趙趙蔡崔崔崔韓黃
 一一熙哲市鎬鳳一基馥熙勇達律九勳馥熙珍重壽浩武煇化斌文泳喆圭康一
 昌世俊永清明祐根東奉壽源鍾炯正正東錫達元志允樞昌重洋瑞永昌聖勝
 石孫申安安吳庾柳尹李李李李李李李李李李任張章張鄭鄭趙趙晉崔崔崔韓玄